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에서 열리는 김효영 작가의 'SIJAK' 브랜드 전시 공간.

'향기'를 전시하다

'향과 아트' 이색 컨셉... 내년 1월5일까지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 국혜린·김효영·주현빈 등 참여, 사진·회화도 전시...체험공간 운영

전시장 밖에서 느껴지던 열은 향기가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점점 짙어진다. 장불재 갈대밭, 눈썹인 설경을 모티브로 한 향수 '서석대', 모스와 버가못 향이 어우러진 향수 '동명동' 등 광주의 명소를 품은 다양한 향수는 흥미롭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앤티크 장식장에 놓인 디퓨저와 다양한 색깔의 향초도 눈길을 끈다.

'향(香)'이 주인공인 이색적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내년 1월 5일까지 전일빌딩 245 3층 시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CONTACT&CONNECT'는 향기를 매개로 서로 만나고, 이어지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광주 동구 관광동에 예비사업체 '향방 프로젝트'가 진행한 기획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를 맞았다.

전시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국혜린(아로마무드), 김효영(SIJAK), 주현빈(de ce jour), 김효정(HYOHYO) 작가 등이 참여했다. 네 명의 작가(팀)는 각각의 공간을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꾸몄다. 향 관련 제품 뿐 아니라 사진, 회화 작품도 함께 어우러졌다. 단순히 상품 론칭 행사가 그치지 않고 '향과 아트'가 어우러진 이색 컨셉의 전시다.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향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국혜린 작가는 '민주향정', '퐁암저수지', '총장로' 등 '광주'를 테마로 개발된 5가지의 '엔모티브 향수'를 전시 중이다. 대인야시장, 총장축제 등에서 시향 행사를 벌인 제품들로 내년 1월 텀블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4기 졸업생인 국 작가는 2016년 아로마 무드를 창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로마 무드가 개발한 4가지 향에 영감을 받은 4명의 청년작가가 작업한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아로마 무드에는 '나만의 향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들의 참여도 높다.

김효영 작가가 선보이는 공간은 이국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다. 김 작가는 지난 2019년 'SIJAK' 브랜드를 론칭했다. 김 작가가 선보이는 색에서는 개성있는 회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그는 그림을 그릴 때 늘 '향'과 함께였고, 그 향은 자신만의 시그니처가 담긴 디퓨저와 립스프레이로 변신했다. 또 직접 몰드 과정을 거쳐 제작한 다양한 색깔의 향초는 'SIJAK'의 개성이 담긴 제품이다.

김 작가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앤티크 가구를 활용해 전시공간을 꾸몄다. 100년이 넘는 대문 나무 프레임 거울, 벼룩 시장에서 발견한 오래된 장식장 등에 놓인 디퓨저와 다양한 초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현재 SIJAK의 제품은 라마다호텔 상무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시판 중이다.

김효정 작가는 인사글에서 "그림과 향기 작업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복합적이지만 예술적 영감이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올 여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언니 효정(디자인), 동생 효신(부대미술)씨와 함께 또 다른 브랜드 'HYOHYO'를 론칭했다. 세 자매가 만든 이 브랜드는 미술학도들 답게 세련된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자매들의 협업은 '삼인삼색'으로 다채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5가지 향의 디퓨저와 립 스프레이, 향초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향수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작가는 "20대 젊은 친구들의 이미지에 맞는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시원한 향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완성했다"며 "세자매가 열심히 시향하며 즐겁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전대에 재학중인 주현빈씨가 만든 브랜드 'de ce jour'는 '화려한 오후'와 '새벽 이슬'로 명명한 두

가지 디퓨저 제품을 전시중이며 직접 촬영한 사진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국혜린 작가는 "광주의 다양한 무형의 테마를 유형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향'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광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작가들과의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 기간 아로마무드 총장로 본점, 라마다호텔 총장점·상무점에서 배포하는 티켓을 소지하면 무료 굿즈를 받을 수 있다. 1월 1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9시~밤 10시. 문의 070-7818-0242, 인스타그램 '아로마무드' 검색.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혜린 작가의 '엔모티브 향수' 중 '동명동'



'신록'

'숨겨진 거장 소송 김정현' 전

20일~2023년 3월12일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영암 출신 소송(小松) 김정현(1915~1976) 화백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해방 후 서울로 거처를 옮긴 그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과 천경자·김기창·박래현과 함께 구성된 '백양회' 창립멤버로 활동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62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의 작품 세계는 지역에서 조명될 기회가 없었고, 지난 2017년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 '영암미술의 새로운 발견'전을 통해 빛을 보게 됐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숨겨진 거장 소송 김정현'전(2023년 3월 12일까지)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집중조명한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2017년 전시로 인연이 닿은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가운데 선별한 그림들이다.

영암 서호면 화송리 출신으로 구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로 이주한 김 화백은 처음엔 서양화를 독학으로 공부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가와바타미술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1942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3

번 연속 입선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목포여중 교사로 재직하며 후진을 양성하던 그는 1954년 서울로 올라갔고 백양회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전통적인 한국화를 벗어나 현대적 감각으로 한국화의 변화에 앞장선 인물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대표 작품 29점과 자료 등을 통해 개성있는 화풍을 만날 수 있다. 비행기 소리에 구경나온 사람들을 그린 1951년작 '평음을 보다(靑鷗)'와 추상적인 색의 표현이 돋보이는 '신록(新綠)', '까마귀가 회오리치는 모습'을 그린 '까마귀떼'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1940년대 목포 풍경을 그린 스케치 그림과 백양회 활동 사진집은 대만, 홍콩, 일본 등 한국화 국제 전시의 생생한 이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작가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애뜻했다. 1964년 잡지 '女像'에 '월출산의 화제물'이라는 글을 실었고 '中央'에 실린 '서호갯마을의 추억'(1976)을 통해 고향 영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추억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양상블 칸타빌레 '모차르트, 그리고 겨울'

창단연주회, 28일 빛고을아트 스페이스

양상블 칸타빌레 창단연주회 '모차르트, 그리고 겨울'이 2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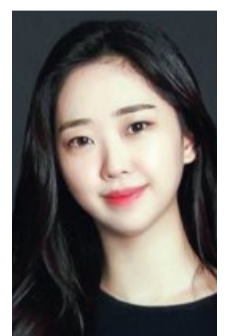
양상블 칸타빌레는 '아름답게 노래하는'이라는 뜻을 가진 그룹으로 광주·전남 클래식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창단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무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강직, 김은민, 강채명, 비올리스트 신세민, 이한솔, 첼리스트 김도령, 최승미, 플루티스트 박소현과 피아니스트 정의빈이 오른다.

먼저 모차르트 '플루트 4중주 A단조'를 시작으로 18세기 중·후반 유행한 기악곡 '디베



강직



이한솔



최승미

르티멘토 D장조'를 선보인다.

이어 스비리도프의 '눈보라',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비발디의 '사계 협주곡 4번 F단조' 등 계절을 노래하는 곡을 올리고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펼친 뒤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무대의 막을 내린다.

전석 무료. 010-8607-6848.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올해의 신인 발레리나상에 공유민 광주시립발레단 차석

한국 발레협회 선정

한국 발레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신인 발레리나상에 공유민(사진) 광주시립발레단 차석 단원이 선정됐다.

공유민 단원은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대 무용학과를 마쳤으며 제1회 K-PROBA 대학 일반부 금상 수상을 시작으로 (사)대한무용학회 대학부 클래식 금상, 제50회 전국 신인무용콩쿨 동상 등 실력을 증명했다. 이후 '돈키호테' 키트리 역, '호두까기 인형' 클라라 역, '오월 바람' 혜연 역, '바후&막스부르크' 주역 등을 제치며 발레단원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한편 19일 한국발레협회가 발표한 제 27회 한국발레협회상 수상자로는 대상에 유병현 유니버설 발레단 예술감독이 선정됐다. 최고의 발레리노에게 주어지는 '당시르 노브르상'은 안주원 아메리칸발레씨어터 수석 무용수, '프리마 발레리나상'은 조연재 국립발레단 단원에게 돌아갔다.

/김다민 기자 kdi@

최옥수 사진작가와 대화

21일 광주시립사진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사진작가 초대전 최옥수(사진) 사진전 전시연계 행사로 '작가와 대화'를 개최한다. 21일 오후 3시 광주시립 사진전시관(문화예술회관 별관).



이번 행사는 남도의 사라져가는 풍경과 표정을 기록해 온 사진 작가 최옥수의 삶과 사진철학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행사는는 전시 도록에 글을 쓴 성정기 전남대 명예교수(운유한 노스탤지어의 시선),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오랜 필름에서 건너온 기록과 예술), 백승현 대동문화 본부장(공감의 파노라마)이 함께 자리해 최옥수 작가와 대화를 나눈다.

내년 3월 26일까지 열리는 '사라지고, 살아있다'전은 잊혀진 하루, 떠오르는 얼굴, 이어진 마음, 사라진 땅과 바다 네 개의 섹션을 통해 최옥수 작가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기록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복숭아밭 지키기 위해 목소리 높이는 초희

보성 출신 정범중 작가 '마스크 요정과 꼬마꽃벌' 펴내

작은 복숭아밭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아이가 있다. 아이는 어른들의 권위에 기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아이의 이름은 봉초희. 오랫동안 전식을 앓았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지만 초희는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보성 출신 정범중 작가가 펴낸 '마스크 요정과 꼬마꽃벌' (문학동네)은 생태적 감수성과 아울러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동화다. 제23호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고정된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보고 목소리를 내는 아이를 모티브로 한다.

심사위원들은 이 동화에 대해 "무엇보다 매력적인 점은 초희의 당당함이다. 자기의 생각이 옳는데 왜 주눅 들겠는가. 이렇게 당당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야겠다"라고 평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자 초희는 자주 복숭아밭에 간다. 아파트 화단의 빈터에 복숭아 씨앗을 심고 부지런히 가꾼다. 엄마와 아빠는 더러운 흙을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봉희는 제 손으로 키운 복숭아라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크다.

초희는 어느 날은 꽃밭에 작은 꼬마벌꽃이 날아든

모습을 보게 된다. 초희가 더더욱 복숭아밭을 지켜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초희의 친구 현아도 찻는 울 때까지 손톱에 복숭아 꽃물을 남겨 두고 싶은 마음이다. 현아는 어느새 초희의 응원권이 된다. 꽃밭을 지키는 것은 초희의 일만이 아닌 많은 친구들에게로 확장된다.

유영진 아동문학평론가는 "도시의 한 아이가 코로 나로 고립된 기간 중에 어떻게 자연을 발견하고 그 자연이 어떻게 아이의 일부가 되며 또 어떻게 시아가 확장되어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고 평한다.

한편 정범중 작가는 198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희곡 '새연'으로 등단, 5.18 기념재단 희곡 우수상, 제주4.3 평화문학상,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봄날의 새연', '칼과 학', '큰일 한 생쥐'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